연초 홈쇼핑 완판 신화

순창메주 2월말까지 메주 40만장·26억원 매출 기대

순창메주가 연초 홈쇼핑에서 매회 방송마다 매진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순창메주를 20여회에 걸쳐 홈쇼핑을 통해, 메주 5만2,000세트 총 21억4,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청정지역 순창 콩 100%로 생산되는 순창메주는 국내 유명 홈쇼핑 3곳을 통해 6회 더 방송 될 예정이며, 홈쇼핑 판매를 통해 총 5만7,000세트, 26억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올해도 메주세트는 지난해와 같은 3종 세트로, 순창콩 메주(750g) 4장, 6장, 8장과 전남 신안군 천일염, 순창 건고추, 참숯, 순창생수, 누름독까지 풀세트로 구성되어 간편하게 집에서 장을 담글 수 있도록 했다.

말날(午日)이라는 날에 장을 담가야 장이 끓어 넘치지 않고 음식 궁합도 잘 어우러진다는 옛 선조들의 관습이 전해지면서 말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청정지역 순창에서 수매한 순창 콩 100%를 사용하여 순창의 특화된 메주를 소비자들에 좀 더 많이 알리기 위해 홈쇼핑을 진행했다"면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력을 불어 넣도록 계속해서 제품개발과 판로를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 메주가 홈쇼핑에서 매회 방송마다 매진되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임실군의회, 광주 찾아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특단 조치 요구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과 장종민 의원 등 의원들은 지난 주말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을 찾아가 신덕면 수천리 1041번지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건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강력 요구했다.

이번 광주광역시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수리 공장은 임실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더불어 대표적 관광명소인 옥정호와 불과 2.1km 떨어진 곳이며, 또한 옥정호는 임실·정읍·김제 주민들의 일일 4만3천톤의 식수를 공급하는 곳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근 지역의 토양정화업 운영은 오염물질의 광역상수원 유입이 명약관화(明若觀火)한 것으로, 주민들의 생명위협이라는 막대한 재앙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대용 의장은 우리 군과 군민들의 강력한 반대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리한 것에 대하여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지역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이번 사태 해결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광주광역시장에 요구했다.

또한,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장은 "지난 11일 1,500여명이 참여한 토양정화업 등록 철회와 해당 회사의 자진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는 군민궐기대회 등 그동안 우리 군민의 결연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으며, 앞으로도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푸드플랜 구축사업 신청 접수

남원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19년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지원 공모사업에 대해 25일까지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은 지역내 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먹거리 질 향상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 취약계층 먹거리 보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먹거리 체계를 구축 확산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다.

오는 3월 전국에서 10개소의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가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5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되어 지방비 5천만원 지원을 포함해 1개소당 1억원 규모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받은 자금은 지역단위 먹거리 실태조사, 지역 푸드플랜 계획수립, 실증 연구 등에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푸드플랜을 수립, 지역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소비자 이익보호와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 관계자는 푸드플랜이 수립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하는 푸드플랜 패키지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갖출 수 있어 1석 2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시에서는 공모사업에 선정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근현대거리를 인력거를 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인력거 남원 근현대 거리서 운영

남원시, 시민 관광객 대상 체험 콘텐츠 조성

남원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남원의 근현대거리를 인력거를 타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남원시는 남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시민들의 추억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에 남원의 근현대거리를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를 조성했다. 가칭 '인력거, 남원 근현대 거리를 달리다'는 주제로 하는 체험형 콘텐츠는 남원 구도심의 보존과 재현을 위해 진행한 남원구도심기록화 사업을 통해 축적된 자료를 중심으로 제작했다.

남원시는 남원다움 체험형 콘텐츠 구축을 위해 지원한 '2018년 지역전략사업 특화과제 지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3억원(국비 2억원,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을 들여 남원 근현대거리 체험형 콘텐츠를 제작하였다.

따라서 체험자들은 조선시대 택시인 인력거를 타고 구남원역, 정화극장, 용성관, 광한루원, 우편국 등 남원 근 현대의 주요 명소들을 시공간을 초월해 가상(3D) 3면 스크린으로 둘러볼 수 있다.

이환주 시장은 "남원 근현대의 역사와 기록을 발굴해 보다 쉽고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구성하여 많은 이들이 찾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은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임실군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 집중 홍보

임실군은 올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1회용 비닐봉지 사용규제를 강화하고,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무상 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와 매장면적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이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커피숍, 마트, 제과점 등 대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한다. 손석붕 환경보호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고, 비닐봉투사용 대신 장바구니 등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이 참여가 필요하다"며 실천을 당부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메아리

남원 춘향골 복사꽃 만개

남원시 금지면 지역 하우스에서 고품질 재배기술로 재배해 조기 출하되며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남원 복숭아 시설하우스 농장의 복사꽃이 만개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설하우스 복사꽃이 올겨울 포근한 기온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5~10일 정도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2월 중하순 만개해 출하 역시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기 출하를 목적으로 하는 하우스 복숭아 재배는 가온을 하거나 보온 등으로 시기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남원지역에서는 1월 상순에 가온을 시작 노지 재배보다 40일 빠른 2월 중하순에 복사꽃이 만개해 5월 중하순에 출하하는 방식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 나상우 소장은 "복숭아 시설재배와 더불어 노지 재배에서도 춘향골 복숭아의 명품화를 위해 병해충 방제, 탑프루트 단지 육성 등 지속적인 품질관리 및 개선 사업을 실시해 농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함께 고민하며 최고 품질의 과수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19년도 쌀 소득 보전직불제 대상 신청 접수

남원시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다.

남원시는 지난해 직불금으로 9,050농가에 174억8,800만원을 지급 농가당 평균 193만2,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쌀 고정직불금에 9,050농가 113억3,700만원, 도비 직불금 8,781농가 11억5,100만원, 시비 직불금 7,460농가 50억원을 지급하는 등 쌀 직불금과 관련 175억1,900만원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기여해 왔다.

이준무 남원시 농정과장은 "지원은 사업별로 지원되는 만큼 신청 농가와 대상필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최소한 3월말까지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줄 것을 당부하며, 4월 중에는 누락농가와 누락필지 등 농가별 신청 상황을 농업인들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점검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